지역 청소년, 인문학에 묻고 답하다

고창 성호도서관, 청소년 대상 '길 위의 인문학' 성료

고창군립성호도서관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한'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지난 24일 후속모임을 마지막으로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고창 청소년, 인문학에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강의 7회, 탐방 3회 등 총 10회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들의 인문학 소양을 넓히고자 기획됐으며 7~8월 여름방학 기간 중 약 한 달여간 운영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그동안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부족했던 고창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로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 나아가 국가와 진로까지 연결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여 평소 인문학에 관심이 있던 주민들도 꾸준히 참여했고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기도 하여 참가자들끼리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군 도서관 담당자는 "청소년들의 생각이 깊고 넓어 놀라웠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으며 내년에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많은 군민들이 현장 인문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군립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했다.

고창군립성호도서관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한'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지난 24일 후속모임을 마지막으로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수 년 간 직접 참여한 경험자로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성황리에 마감되어 감회가 새롭고 고창군민의 높은 수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인재를 키우는 평생학습도시, 인문학도시 고창군은 앞으로도 인문학도시의 기반이 될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5년 연속 공모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고창 농업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는 군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오는 9월 14일까지 운영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순창경찰서 태풍 '솔릭'으로부터 주민안전 지켜내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여 순창지역을 통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난 23일 경찰관서 화상회의를 통하여, 모든 직원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지휘관 지휘선 상위치하며 재난안전 대책본부, 소방관서등과 연락하며 즉응태세를 갖췄다.

특히,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24일 새벽부터 순창지역에 영향권이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경비부서는 태풍관련 이동경로와 위력등 실시간 파악하고 부서간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부서는 도로변 전신주 및 가로수점검, 교량 도로침수 및 유실 예상지역에 순찰과 사전조치로 인명피해 및 교통흐름에 장애요인제거 등 순찰을 강화했고, 수사부서에서는 강천산등 관광지의 이영객, 캠핑장에 사전대피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뜬 눈으로 날을 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경찰서, 사회적약자 성폭력 교육 · 미술심리치료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3일 오전 남원시 지체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경찰체험활동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례중심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인 '장애인 성인지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HTP(미술심리 프로그램)를 이용해 장애인들의 내면의 생각을 미술활동으로 치료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적장애인 협회와 함께 냅킨 아트공예를 직접 제작해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강평원 산외면 신임면장, 경로당 방문 현장행정 펼쳐

강평원 신임 산외면장이 지난 20일부터 구장경로당을 비롯한 지역 내 33개소 경로당을 방문,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 자로 부임한 강신임 면장은 "어르신들의 면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경로당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행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면장은 어르신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노인복지 서비스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소개했다.

어르신들은 "바쁜 업무에도 잊지 않고 경로당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듣고·개선해 준다니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모든 힘을 보태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강 면장은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현장행정에서 직접 보고 청취한 불편사항은 개선 방안을 찾아 반영하는 등 면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산외면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서 청문실, 갑질 근절 등 비위예방 실천 교육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갑질을 사전 예방 및 잔존하는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전 직원 교육 실시 및 존중과 배려의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피해자보호지원 활동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징계양정에 통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해 갑질 문화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여 조직 내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뿐만 아니라 갑질 피해자 조사단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에도 심혈을 기울 일 예정이다.

부청문관 박원성 경위는 "올바른 조직문화를 정착을 위해 갑질 사례, 피해자보호관 우수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지고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직원 간 상호 존중 및 소통의 문화 조성하여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잔존하는 갑질 행태를 근절방안을 모색해 청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경찰서, 태풍 등 재난 취약 지역에 교통 통제 실시

임실경찰서는 지난 23일부터 태풍 '솔릭' 피해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및 차량 침수 등 예방을 위해 17번국도 침수 취약장소 5개소 등 주요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 교통 통제활동을 벌였다.

또한 24일에는 태풍 이후 누전사고 및 파손우려가 있는 교통 입간판과 표지판, 교통시설물, 신호제어기 등을 재점검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현 서장은 "태풍 기간 동안 기상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통제 등 단계별 총력 대응하고, 국토관리사무소·지자체와 핫라인을 유지하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삼립 익산지점, 태풍 대비 비상 근무자에게 격려 물품 전달

SPC삼립 익산지점(대표 오영구)에서는 지난 24일,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인 익산시 직원들에게 김밥 150인분을 전달했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특히 호남지방은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며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행스럽게도 익산은 큰 피해 없이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익산시는 솔릭의 북상과 관련하여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재난상황 비상대비체제에 돌입,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가 태풍에 완벽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오영구 대표는 "30만 익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직원분들께 보이는 작은 성의"라며 말을 아꼈다. /익산=우명희 기자